도레이새한, PP 부직포 세계 5위로…

구미공장 1만5000톤 증설 완료 … 수출전략 강화에 중국 현지생산 추진

도레이새한(대표 이영관)이 구미공단 소재 부직포 생산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2006년까지 중국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레이새한은 5월21일 구미공단에서 생산능력 1만5000톤의 Polypropylene 부직포 생산공장을 증설하고 일본 Toray의 마에다 가쓰노스케(前田勝之助) 회장과 도레이새한 이영관 사장,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등 대대외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도레이새한은 총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공장이 완공되면서 총 생산량이 4만9000톤으로 늘어나 아시아 1위, 세계 5위의 부직포 전문기업으로 도약했다.

또 증설을 계기로 사업구조를 내수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해 생산량의 60%를 일본, 중국, 타이완 등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기로 했다.

도레이새한이 생산하는 부직포는 균일도가 높고 내수압이 향상돼 아기기저귀 등의 위생용품 뿐 아니라 토목이나 농업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시장은 진출 4년만에 시장점유율이 25%로 확대되는 등 품질과 제품경쟁력을 입증받았다.

신증설된 설비는 PP를 코아(Core)로 하고 외부를 PE(Polyethylene)으로 감싸는 첨단 복합방사 설비로 유연성과 강도를 동시에 높인 다층구조의 부직포를 생산하게 된다.

한편, 도레이새한은 앞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2006년 현지 생산개시를 목표로 중국에 부직포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도레이새한 관계자는 “중국 생산공장 건설을 계기로 2006년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30%로 높이고 의료용이나 필터용, 환경용 소재 등 지속적인 제품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5/25>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